

동병상련 '섬처녀'... LPGA 첫 승 합작

임진희·이소미 2인 1조 대회 정상
연장전서美 톱스프스·캉 콤비 꺾어
지난해 힘든 루키시즌 동고동락
제주·완도 출신... 서로 밀고 끌어
"혼자였으면 우승 어려웠을 것"

연도	선수	대회명
2023년	고잔영	HSBC 월드 챔피언십 (파운더스컵)
2023년	김효주	에센티브 LPGA
2023년	양희영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2024년	양희영	KPMG 여자PGA 챔피언십
2024년	김아림	일본그랜드메이저스
2024년	김효주	포드 챔피언십
2024년	유재만	블랙데어트 챔피언십
2025년	김아림	일본그랜드메이저스
2025년	김효주	포드 챔피언십
2025년	유재만	블랙데어트 챔피언십
2025년	임진희·이소미	LPGA 투어 2인1조 경기, 한국 선수 첫 우승



미국 여자 골프 LPGA의 유일한 2인 1조 대회에서 우리나라 임진희(왼쪽)·이소미 선수가 첫 우승을 일궈 냈다.

AFP=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강자로 군림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임진희와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인 1조 대회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임진희와 이소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서 끝난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로 우승했다.

렉시 톱스프스-메건 캉(이상 미국) 조와 연장전을 치른 임진희와 이소미는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미국 무대 첫 우승을 확정했다.

이소미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작년에 힘든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우승이 너무 행복하고,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둘은 KLPGA 투어에서 잘나가는 선수들이었다. 한국에서 임진희가 6승, 이소미 5승을 거뒀고 통산 상금 역시 임진희가 2억 원, 이소미는 30억 원을 넘게 벌었다.

그러나 이소미는 지난 시즌 LPGA 투어 한 살 많은 임진희가 1998년생으로, 둘 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2024시즌 LPGA 투어 신인으로 활약했다.

지난 시즌까지 이소미는 대방건설, 임진희는 안강건설 후원을 받았으나 2025시즌을 앞두고는 후원사 로고가 없는 모자를 착용했다.

지난 시즌까지 이소미는 대방건설, 임진희는 안강건설 후원을 받았으나 2025시즌을 앞두고는 후원사 로고가 없는 모자를 착용했다.

우승 기자회견에서 10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예비합 챔피언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소미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스키아데일리아연합뉴스

임진희는 시즌 개막 후인 올해 4월 신한금융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었지만, 이소미는 여전히 메인 후원사가 없다.

두 선수 모두 한국에서 20억~30억 원 넘게 번 만큼 메인 후원사가 없다고 해서 '눈물 젖은 빵'을 삼켰다는 식의 표현은 과장일지 몰라도 톱 랭커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진출 후 비슷한 길을 걸어오던지 이번 대회 내내 둘은 서로에게 신뢰를 내보였다. 3라운드 후에도 둘은 이소미가 "제가 요즘 아이언샷이나 퍼터가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언니의 아이언샷이 너무 좋았다"고 칭찬했고, 임진희는 "소미가 항상 페어웨이를 지켜 주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서로 공을 돌리는 모습이였다.

LPGA 투어 유일의 2인 1조 경기인 이번 대회에서 둘의 팀 이름은 'BITT'다.

제주도 출신 임진희와 완도 출신 이소미가 모두 섬에서 왔다는 의미인 '본투비 아일랜드'(Born to be Island)의 약자라고 한다.

임진희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혼자였으면 우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1년 후배 이소미를 칭찬하며 "내년에 다시 이 대회에 나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기자회견에서 10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예비합 챔피언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소미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스키아데일리아연합뉴스



1·2위 잡고 가을야구 넘본다... 예전 모습 온데간데없는 '봄데'

봄에만 잘하던 롯데, 현재 3위
야수 부상·에이스 이탈 속 선전
LG·KIA 3연전이 판도 가를 듯



롯데 선수들이 1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힘겹게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4-3으로 승리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야구 전문가의 예측에도 순위표 상단을 점령한 채 6월을 보냈다.

롯데는 30일 기준 43승 3무 34패(승률 0.558)로 리그 3위를 달린다. 1위 한화 이글스와는 고작 2경기 차, 2위 LG 트윈스를 1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매년 봄에만 좋은 성적을 내다가 여름이 시작하면 추락하기 일쑤라 '봄데'로 불렸던

롯데의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황성민·나승연·윤동희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이탈하고 5월까지 예이스로 활약하던 박세웅이 이탈한 와중에서도 이렇듯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롯데는 이제 전반기 남은 9경기에서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정권에 들어온 한화와 LG의 '양극 체제'를 위협하는 게 목표다. 이와 동시에 어느덧 1.5경기 차까지 따라붙은 4위 KIA 타이거즈의 추격을 제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주 롯데가 LG와 주중 3연전(부산 사직구장)과 KIA와 주말 3연전(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어떤 결과를 남기느냐에 따라 전반기 프로야구 순위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LG와 주중 3연전에 터커 데이비스-알렉스 캄보-이민석으로 이어지는 선발 투수진을 가동할 전망이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